광주·전남 1인당 개인소득 꾸준히 증가

2020년 17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 4위, 전남 10위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 광주 3.95%, 전남 5.02%

광주전남연구원 '1인당 개인소득' 분석

광주·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인당 개인소득에서 광주는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4위, 전남은 10위에 올랐다. 지난 2011년 각각 10위와 17위였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이전,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11일 지난 2000년부터 21년간 통계청의 '전국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의 1인당 개인소득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잠정치)의 전국 평균은 2120만원이며,17개 시·도 중 광주가 2128만원으로 4위, 전남이 2010만원으로 10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은 광역도 중 3위를 차지했다.

1인당 개인소득의 최근 5개년 평균 증가율은 광주 3.95%, 전남 5.0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3.44%보다 높다. 광주·전남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매년 지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는 2015년에 7.6% 상승해 20년 동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5년 7.5%, 2001년 7.2%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던 연도는 2010년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전남은 2004년에 8.9%가 상승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2002년 7.0%, 2018년과 2015년 모두 6.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 상승률을 보인 연도는 2011년으로 1.6% 상승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수입이 많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지역 총소득만 볼 경우,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지 낮은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인당 개인소득을 확인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1인당 개인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가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월세, 주택담보대출원리금, 세금, 보험 등 고정 지출이 많으면 소득이 올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천 징검다리서 지방선거 캠페인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유촌동 인근 광주천 징검다리에서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수소 충전소 확충·수소 산업 활성화 나선다

장등동에 6번째 충전소 가동
민간 주도 2기도 연내 완공

광주시가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과 수소 산업 활성화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첫 시내버스 전용 수소 충전소가 이날 북구 장등동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국비 42억원과 시비 18억원을 투입한 충전소는 시간당 120㎏, 하루 수소 시내버스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광주에서는 진곡, 동곡, 임암, 벽진, 월출에 이어 6번째로 문을 연 수소 충전소다. 상반기에는 민간 주도 매월 충전소, 하반기에는 벽진 충전소 1기 증설이 완료되며 내년에는 신촌동에도 충전소가 신설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해마다 20여대 노후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고, 2025년 이전 예정인 첨단 3지구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에 2호 수소 버스 충전소를 짓기로 했다.

광주시는 2020년 한국가스공사, 2021년 한국중부발전·SK가스·두산건설·SK증권 등과 각각 수소 생산기지,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건설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평동 3차 산단에 들어서는 수소 생산기지는 하루 생산량 4t 규모로 284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빛고을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는 광주시 제1 하수처리장 유휴부지에 815억원을 투자해 12.32㎿ 용량 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는 9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여기서 생산된 열원은 시청 등 상무지구 26개 기관과 아파트 단지 820 가구에 공급된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수소충전소 확충은 그린뉴딜 및 수소경제 핵심사업"이라면서 "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을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인프라 생태계를 활용하면 기업하기 좋은 수소산업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장 대성학원 건물로 이전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새로운 교육장으로 이전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인공지능산업 융합 사업단은 사관학교 3기 운영에 맞춰 현재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에 있는 교육장을 광주 동구 대성학원 건물로 옮긴다. 새 교육장은 건물 1~3층에 2500여㎡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회의실 등 소통 공간, 2~3층에는 강의실·프로젝트실 등이 들어선다.

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교육시설로 설계됐고 기본적인 강의 설비를 갖춰 공간 개선작업을 거쳐 5월 중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청소년 노벨캠프' 참가자 모집…29일 마감

이공계 고교생 20팀

전남도가 '2022 청소년 노벨캠프'에 참여할 이공계 고등학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노벨캠프는 노벨상을 꿈꾸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연구를 하도록 연구수행 활동비를 지급하고,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참여 학생의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도록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 과학과제 연구 교과목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연구과제 컨설팅과 여름방학 1일캠프를 새롭게 진행해 연구 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남지역 고등학교 1~2학년이다. 팀당 5명(학생 4명, 지도교사 1명)을 구성,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 신청하면 된다. 연구주제는 이공계 분야라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전남도는 서류심사를 통해 20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팀당 600만원의 연구 수행 활동비를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소년 노벨캠프가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과학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관심있는 학교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과학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로 2019년 노벨캠프를 시작, 지난 3년간 총 190명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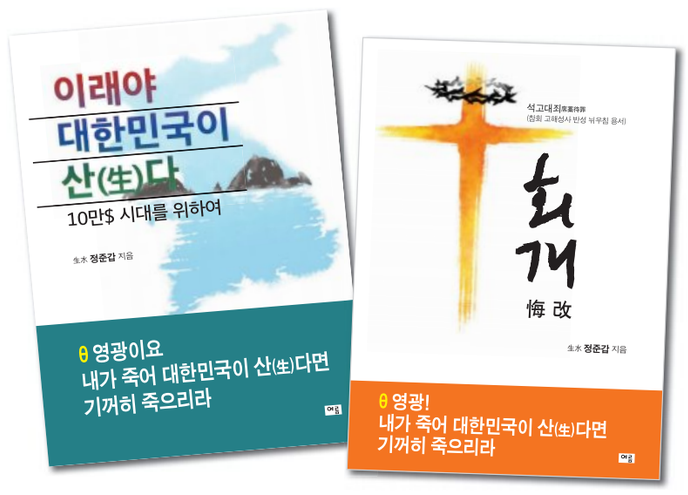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 전남도, 올 125억 지원

전남도가 '2022년 상반기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사업' 대상 156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도록 본격 지원한다.

올해 전남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투입하는 재정지원 사업비는 총 125억원이다. 사업별로 150개 기업에서 56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75억원, 90개 기업 대상 사업개발비 10억원, 16개 기관 및 단체 지역특화사업비 6억원, 90개 기업 시설장비 지원 15억원, 마을기업 육성 19억원 등이다.

사업 대상 기업은 지원약정 1년 동안 안정적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어 고용 여건 개선과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정지원 대상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비는 시·군을 통해 기업에 교부된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 자격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올 하반기에도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

전남도는 20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나섰다. 취약계층에는 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제품 성능 및 품질개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生水 정준갑 지음 | 17,000원 | 13,000원 | 도서출판 여름(문의 : 02-2278-6990)

죄인 **정 준 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주간(4.11.~4.17.)

＊책 내용을 宗教적으로만 보지말고 精神으로 보아주시고 아파트경비원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록한 글

＊저자에게 주어진 도서 수익금은 전액 공익 기부함.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혼슈우는 즈그땅
(쓰시마)

아! 大 한국人이여! 일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깨어(나)라
아! 大 한국人이여! 거듭나라
가슴·마음속에 숨어있는 민족 얼·혼·恨·통분·울분에
함성을 함께 외쳐라·뭉쳐라·밝혀라·세워라·행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간다.
(회개/고해성사/참회/반성/뉘우침)

1인당 국민소득 10만＄ 시대가 보인다.

타도하자 공산 독재주의
바로 알자 공산주의 사상
때려잡자 공산당
쳐부수자 마귀/귀신 미혹의 영
일깨우자 사회주의
개선하자 자유민족주의
바로 세우자 자유민주공화국
정립하자 자유민주주의
개벽하자 타락한 세상(세계)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정권이 되기를~

★창조주 여호와 θ께 회개하오며 국민께 고해성사와 참회를 하오니 괴수·금수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옵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8-28)

★이 책은 대한민국을 구제할 **민족정신지도자 66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죄인이 국민·광주시민·호남인에게 드리는 글이 있습니다.

★전국광역시/도 및 각 시·군·구에 **33인 정신지도자** 선정.
[개신교 16인, 천주교 8인(성공회 1인 포함), 불교 8인(원불교 1인 포함), 유림1인]

詩 : 恨
무등산아! 무등산아! 너는 왜 그러고 있니!
나는 하염없는 인생이다만,
너까지 하염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여도,
너는 떳떳한 것을,
왜 그리 처량하니 지켜만 보고 있니!
자존심을 지켜다오. 자긍심을 살려다오. 자존감을 올려다오.
무등산아! 무등산아! 울지 마라. 무등산아!
힘내어라. 무등산아!